

김세영, LPGA투어 8승 달성...과연 '연장불패'

4차례 연장전서 모두 우승 장식 기록 이어가



김세영이 5일(현지시간)미 캘리포니아주 데일리 시티의 레이크 머세드 GC에서 막을 내린 미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별간바지' 김세영(26·미래에셋)의 연장 불패는 계속된다. 김세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8승에 성공했다. 김세영은 6일(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데일리시티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파72·6551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메디힐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3오버파 76타를 쳤다. 최종합계 7인더파 281타를 적어낸 김세영은 이정은(22·대방건설), 브론테 로(영국)와 연장전에 돌입했다. 김세영은 18번홀에서

계속된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버디에 성공, 두 선수를 따돌렸다. 지난해 7월 순배리 크리크 클래식 이후 10개월 만의 우승이다. LPGA 통산 8승째다. 올 시즌 한국 국적 선수의 우승 횟수는 총 6으로 늘었다. 고진영(23·하이트진로)이 2승을 챙겼고, 지은희(32·한화큐셀)·양희영(29·우리금융그룹)·박성현(25·솔레이)·김세영이 1승씩을 기록했다. 태국 남자들은 11개 대회 중 절반 이상을 1위로 마치며 세계 최강의 기량을 입증했다.

김세영에게는 이질한 하루였다. 3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입한 김세영은 1번홀 더블보기로 주춤했다. 2번홀에서도 보기를 받으면서 2위와의 격차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후에도 김세영은 컨디션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다. 파세이브 행진을 이어가다가 8번홀에서 다시 1타를 잃었다. 굶은 날씨도 김세영의 도약을 방해했다.

이 사이 브론테 로가 무섭게 치고 나왔다. 6번홀까지 이븐파에 그쳤던 브론테 로는 7번홀부터 12번홀까지 5인더파를 쏟아냈다. 15번홀에서는 샷이름에 성공,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김세영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15번홀 버디 퍼트로 한숨을 돌렸다. 17번홀에서 파세이브에 실패하며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는 듯했지만 18번홀(파5) 버디로 기사회생했다. 세 번째 샷을 홀컵 바로 옆에 붙인 뒤 깔끔한 버디 퍼트로 브론테 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정은도 우승 경쟁에 가담했다. 후반에만 5타를 몰아치며 김세영, 브론테 로와 연장전에 돌입했다.

세 선수의 정면승부는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막을 내렸다. 김세영은 정규 라운드 18번홀에서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갔다. 그린 바깥 퍼트를 홀컵 근처로 보내면서 기회를 잡았다. 브론테 로와 이정은은 모두 파에 그친 것을 확인한 김세영은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리며 롤러코스터 같았던 하루를 해피엔딩으로 장식했다.

김세영은 LPGA 투어 입성 후 치른 4차례 연장전을 모두 우승으로 장식하는 기분 좋은 기록을 이어갔다.

역전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이정은은 매서운 몰아치기로 신인왕 0순위의 면모를 맘껏 뽐냈다. 이정은은 이번 준우승으로 신인왕 포인트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다. 양희영과 지은희는 중간합계 5인더파 283타로 멕시코 출신(미국)과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호주 동포 이민자(23)도 최종합계 4인더파 284타 공동 8위로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KIA 4번타자 최형우 기력 회복?



KIA 타이거즈 4번타자 최형우(35)가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최형우는 지난 주 매서운 방망이를 휘둘렀다. 6경기에서 25타석 22타수 10안타 2홈런 5타점 5득점을 올렸다. 타율 4할5푼5리였다. 주간 타율만 계산하면 7위였다. 장타율 7

위이다. 득점도 23점을 올리고 있다.

최형우는 개막 이후 상대의 집요한 몸쪽 공략에 고전했다. 의식적으로 몸쪽 볼을 치려다 몸이 열리며 빗맞은 타구도 많았고 헛스윙도 많았다. 몸이 어이없이 무너지는 장면

최근 6경기 22타수 10안타 2홈런 5타점 5득점

주간 타율 0.455...타율도 0.291 3할 대 눈 앞

할7푼3리, 출루율 5할2푼을 기록하는 등 타격 전반에 회복 곡선을 그었다. 최근 10경기에서 4할5푼의 타격을 앞세워 타율도 2할9푼1리까지 끌어올렸다. 26타점으로 팀내 1

이 잦았다. 4월 23일까지는 타율 2할4푼4리, 장타율 4할2푼2리, 출루율 3할3푼3리로 흔들렸다. 그러나 이제는 타석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며 장타와 안타를 쏟아내고 있

다. 최근 10경기에서 삼진이 5개 밖에 되지 않았다. 무서운 4번타자의 힘을 되찾았다고 볼 수 있다. 4번타자 최형우의 회복은 고무적이었다. KIA는 지난 주 최형우의 폭발적인 타격에 힘입어 주중 삼성전에 2승1패를 기록했고 주말 NC와의 첫 경기도 8-4로 승리하는 등 타선이 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이쉬운 점은 최형우를 뒷받침하는 타자들의 지원이었다. NC와의 첫 경기를 잡고도 타선이 터지지 않아 2연패를 당해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이유였다. 3번타자 안치홍은 타격이 좋아지는 듯 했으나 최근 4경기에서 14타수 2안타로 부진했다. 2번 김신민이 지난 주 25타수 5안타에 그쳤다. 6경기 가운데 3경기에서 침묵했다.

5번 김주찬이 부진에 시달리다 지난 주 19타수 7안타를 터트리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희소식이다. 지난 2017년 우승의 원동력은 최형우가 든든하게 4번 자리를 지키고 전후에 포진한 타자들도 3할 타율로 막강한 공격력에 힘을 보탤다. 그러나 올해는 개막 초반 타선이 집단 부진에 빠져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다.

특히 선발 마운드가 주춤해 득점력 증대가 절실하다. 실제로 지난 주 희망적이 모습도 있었다. 빅이닝을 만들어내는 특유의 집중력을 보였다. 돌아온 4번 타자 최형우의 활약이 컸다. 반등을 위해서는 다른 주전타자들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단 최형우가 그 불씨를 당겼다.

김연경, 터키리그 챔프 등극 무산

지난 시즌 이어 또 준우승...내일 귀국 예정

엑자시바시를 7년 만에 터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다던 김연경의 계획이 무산됐다.

김연경이 속한 엑자시바시는 5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 부르한펠레 경기장에서 열린 2018~2019 터키여자배구 챔피언결정전(5점승제) 5차전에서 바키프방크에 0-3(17-25 18-25 21-25)으로 완패했다.

1승2패로 물린 4차전을 떠나며 분위기를 바꾼 엑자시바시는 이날 무기력한 플레이로 맥이 무너졌다. 지난 시즌에 이은 또 한 번의 준우승이다.

이적 첫 시즌 우승을 노렸던 김연경은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김연경은 이날 8점을 올리는데 그쳤다.

시즌을 마친 김연경은 8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엑자시바시는 세터와 공격수들의 어긋난 호흡 탓에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바키프방크는 간판 공격수 주팅을 앞세워 격차를 벌렸다.

주팅은 16-12에서 과감한 공격으로 5점차를 만들었다. 1세트는 바키프방크의 25-17 승리.

2세트에서도 엑자시바시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바키프방크가 밀찌감치 달아났다. 초반부터 4점차 리드를 잡은 바키프방크는 결국 엑자시바시의 추격을 18점으로 막고 세트스코어 2-0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반전은 없었다. 엑자시바시는 3세트 11-11 이후 힘의 차이를 절감하며 무너졌다. 20-23에서 상대 서브 범실로 마지막 불씨를 살



렸으나 속공을 헌납하며 이어 공격 범실까지 나오면서 패배가 확정됐다.

바키프방크는 2년 연속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뉴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남,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